



Colors, Future!

いろいろって、未来。

川崎市

#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의식 실태 조사 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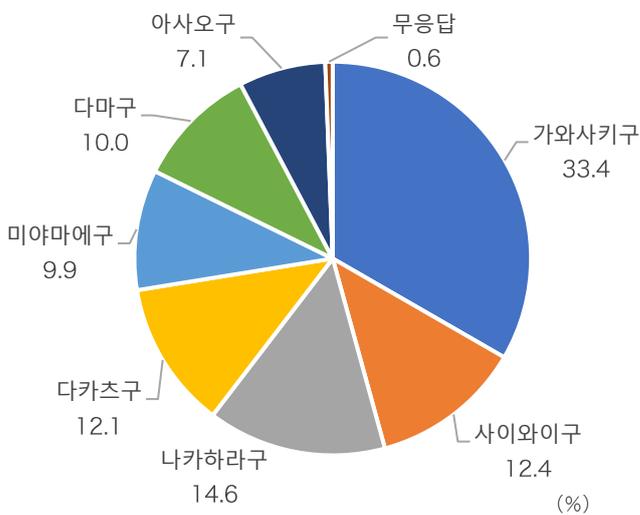
## <개요판>

가와사키시에서는 국적이나 민족, 문화의 차이를 오히려 풍부함으로 살려,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자립된 개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‘다문화 공생 사회’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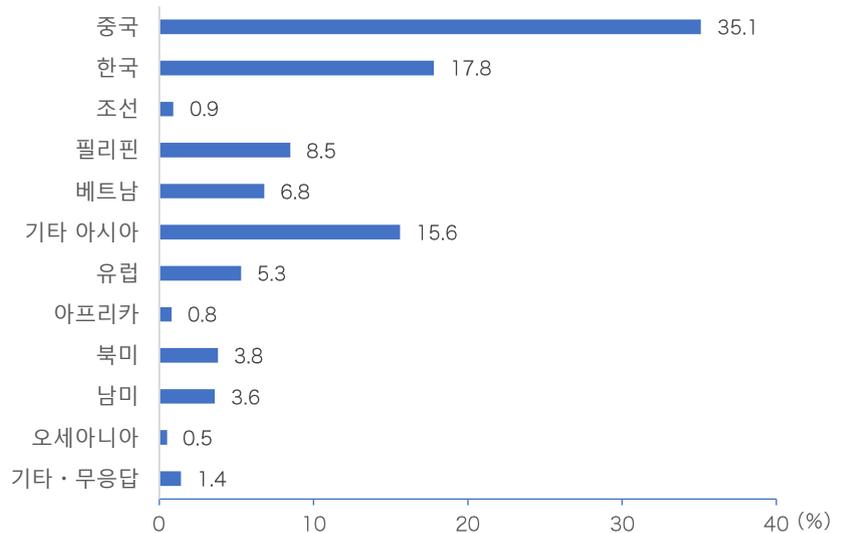
이번에 가와사키시에 사는 외국인 시민의 의식과 실태, 필요한 것 등을 파악하여 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, 2014 년에 실시한 이전 조사로부터 5 년 만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는 일상 생활, 의료 및 보험, 육아 및 교육, 지역 활동 및 시정 참가, 직업, 행정기관의 대응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. 조사표 (설문 용지)는 일본어 외에 영어, 중국어(간체), 중국어(번체), 한국·조선어, 포르투갈어, 스페인어, 타갈로그어 (필리핀어), 베트남어, 태국어로 번역한 것을 준비했습니다.

조사 대상자는 무작위로 뽑은 시내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외국인 시민 (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) 5,000 명으로,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1,085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(회수율:21.7%). 응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성별로 보면, 남성이 44.2%, 여성이 55.3%, 기타 0.1%, 무응답이 0.5%이었습니다. 또한, 거주구별, 국적 및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【거주구별 자세한 내용(N=1,085)】



【국적 및 지역별 자세한 내용 (N=1,085)】



이 ‘보고서 <개요판>’에서는 조사 결과 중, 주요한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.

가와사키시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충실한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, 향후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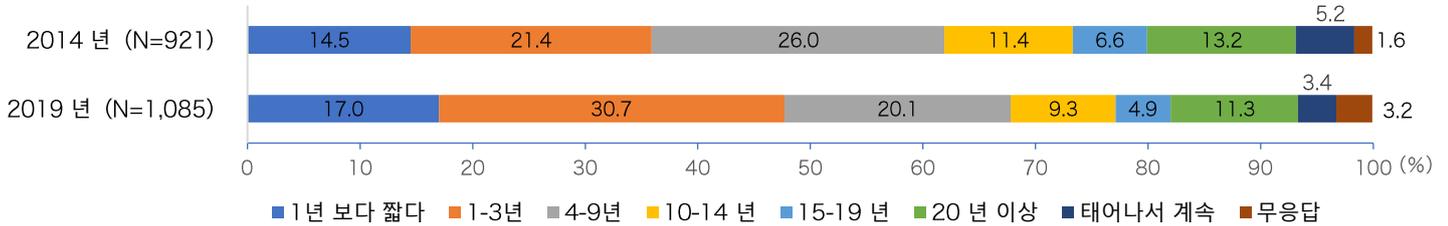
그리고 ‘보고서<개요판>’은 영어, 중국어 (간체), 중국어 (번체), 한국·조선어, 포르투갈어, 스페인어, 타갈로그어 (필리핀어), 베트남어, 태국어도 있습니다. 본 보고서와 개요판은 아래 URL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http://www.city.kawasaki.jp/shisei/category/60-7-4-0-0-0-0-0-0-0.html>

## 시내 거주 연수는 절반 가까이가 3년 이내

시내 거주 연수를 묻은 결과, 47.7%인 절반 가까이가 3년 이내였습니다. 또한, 67.8%가 9년 이내였습니다.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, 3년 이내가 11.8%, 9년 이내가 5.9% 증가했고, 전체적으로 시내 거주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으로 볼 때 새로운 외국인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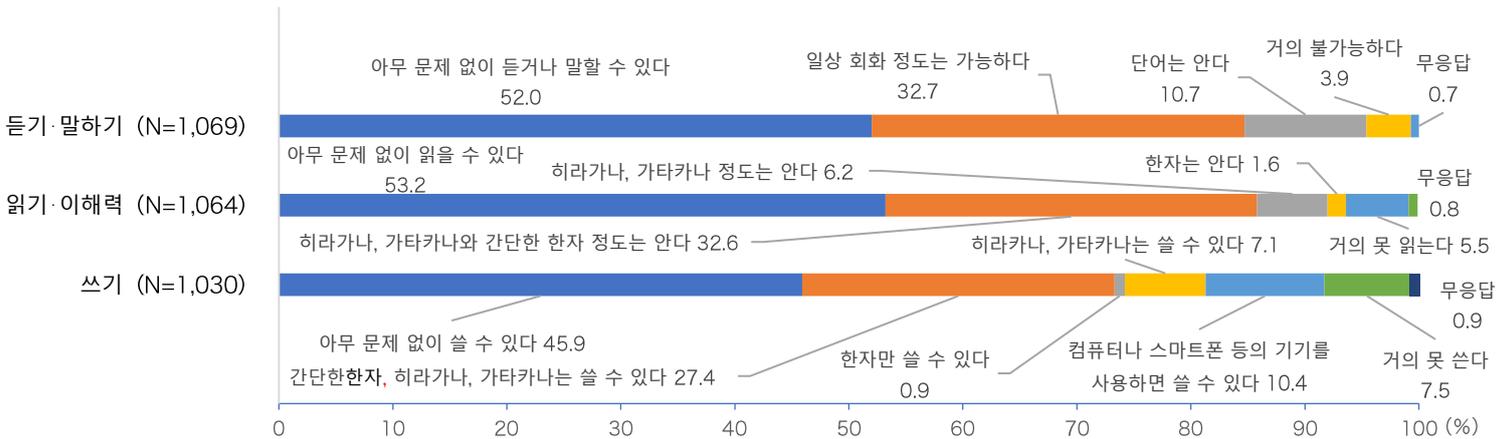
### 【시내 거주 연수】



## 일본어 능력은 일상 생활 수준이 70~80%

일본어 능력에 대해 묻은 결과, '문제 없다'와 '일상 회화' '히라가나, 가타카나와 간단한 한문 정도는 안다'라는 응답이 <듣기·말하기>와 <읽기·이해력>에서 80% 이상, <쓰기>에서도 70%를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모두가 이전 조사에 비해 10% 가깝게 늘었고, 일본어 능력은 전체적으로 높아졌으나, 한편 '거의 못한다'는 사람도 3.9~7.5% 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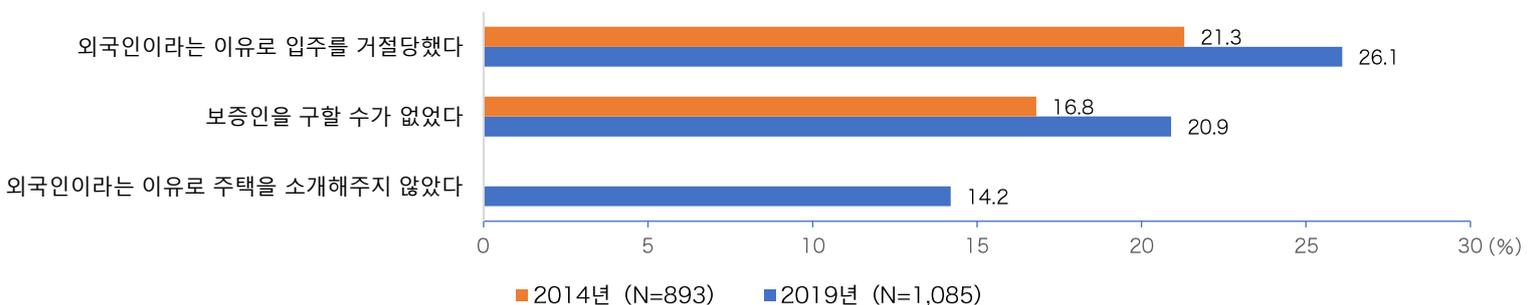
### 【일본어 능력】



## 살 곳을 마련할 때 여전히 이런 문제가

가와사키시에서 주거를 마련할 당시 경험한 것에 대해 묻은 결과, 50.2%는 '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'라고 응답했습니다. 한편, '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'는 26.1%, '보증인을 구할 수가 없었다'는 20.9%로 각각 이전 조사보다 증가했습니다. 또한, 새로운 선택 사항으로 추가된 '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택을 소개해주지 않았다'도 14.2% 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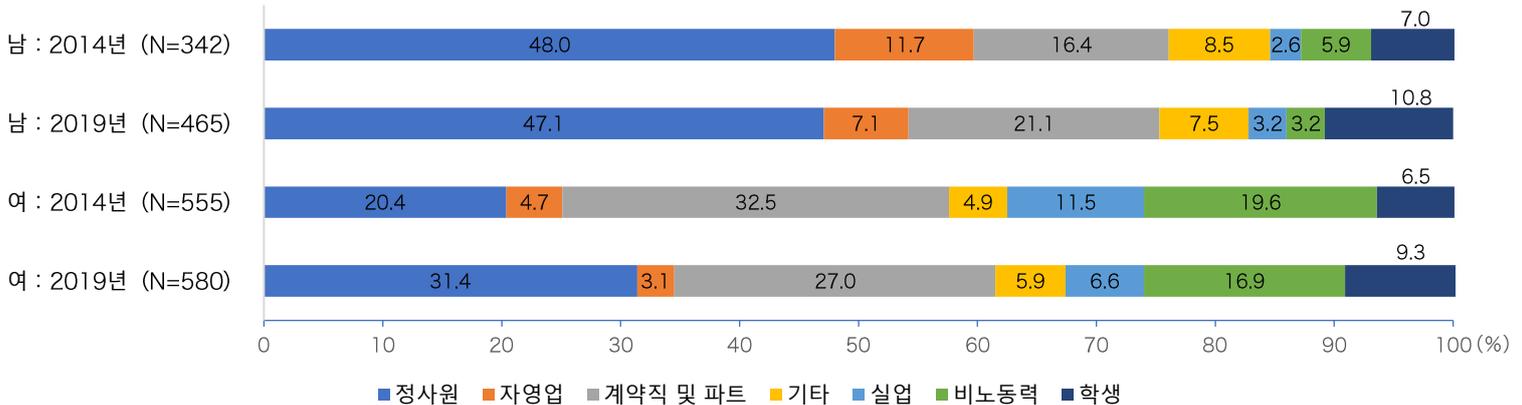
### 【살 곳을 구할 때 힘들었던 경험】



## 정사원 비율은 남성이 조금 감소, 여성은 크게 증가

업무상의 지위에 대해 물은 결과, 이전 조사에 비해 정사원의 비율이 남성은 0.9% 감소해 47.1%, 여성은 11% 증가해 31.4%로 성별에 따른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었습니다. 단, 취업 구조 기본 조사(2017년)에 따르면, 가와사키시의 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정사원의 비율은 남성이 69.8%, 여성이 43.1%로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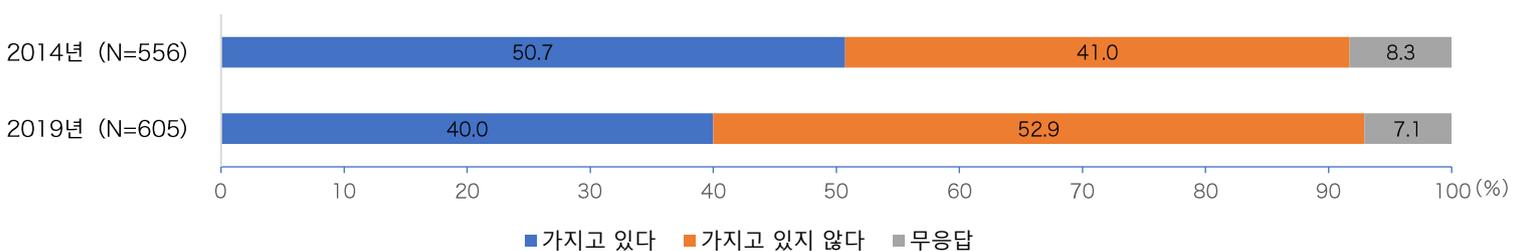
### 【업무상의 지위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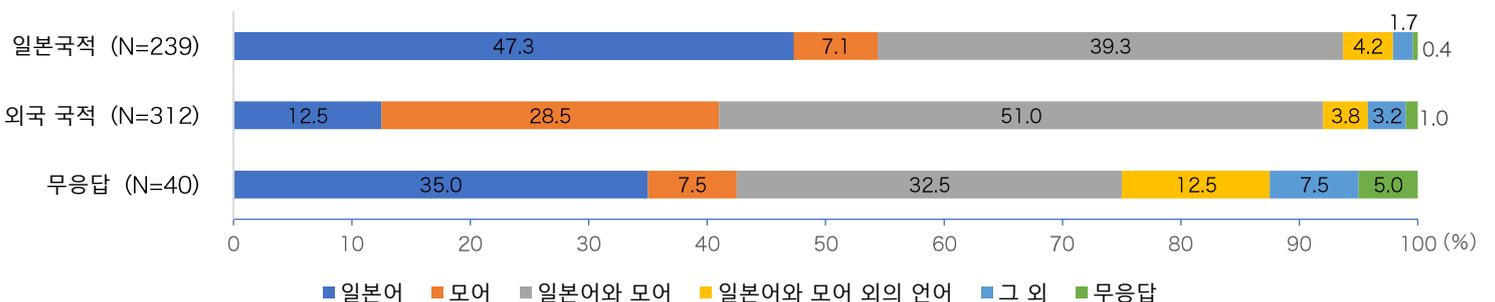
## 가정에서 자녀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, ‘일본어와 모어’가 가장 많아

응답자 전체의 38.0%인 약 40%가 25세 이하의 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자녀의 국적에 대해 물은 결과 이전 조사의 50.7%에 비해서는 하락했으나, 40.0%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또한, 가정에서 자녀와 사용하는 언어는, ‘일본어와 모어’가, 일본 국적의 자녀들이 39.3%, 외국 국적의 자녀들이 51.0%로 나타나, 가장 많았습니다.

### 【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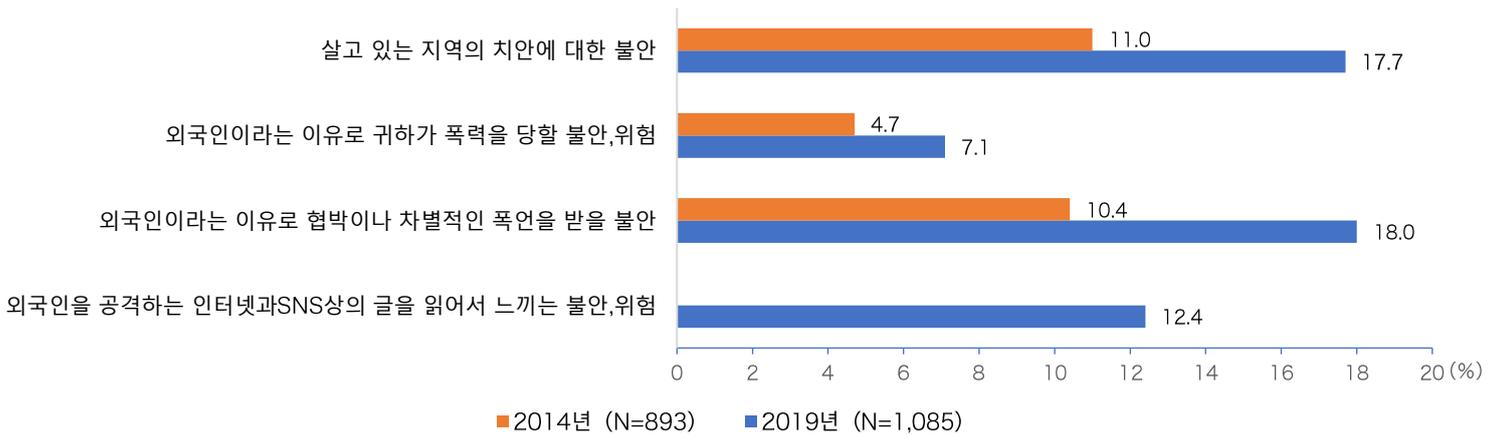
### 【자녀의 국적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】



## 최근 1년간 느낀 불안이나 위험은 증가

최근 1년간 느낀 불안이나 위험에 대해 묻은 결과, 58.1%는 '불안이나 위험을 느낀 적이 없다'고 응답했습니다. 한편, '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이나 차별적인 폭언을 당할 불안'은 18.0%, '살고 있는 지역의 치안에 대한 불안'은 17.7%, '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귀하가 폭력을 당할 불안, 위험'은 7.1%로, 모두 이전 조사에 비해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새로 선택 사항에 추가된 '외국인을 공격하는 인터넷과 SNS상의 글을 읽고 느끼는 불안, 위험'도 12.4%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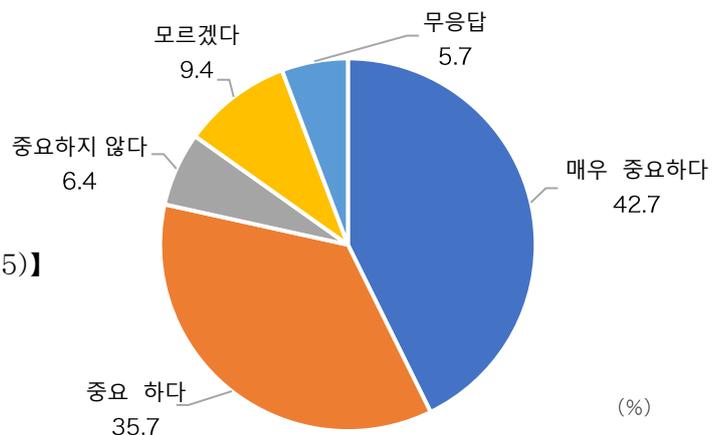
### 【최근 1년간 느낀 불안이나 위험】



## 인권이나 차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약 80%가 중요

가와사키시에서는 2019년 12월에 부당한 차별 해소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만들기 추진을 강조한 '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만들기 조례'를 제정하였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 직접 묻은 것은 아니나,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을 묻은 결과, '인권과 차별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'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'매우 중요하다'와 '중요하다'의 합계는 78.4%로 약 80%를 차지하는 결과였습니다.

### 【인권이나 차별에 관한 조례 제정 (N=1,085)】



2020 (레이와 2) 년 3 월

발행: 가와사키시 시민 문화국

〒210-000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에키마에 혼초 11-2 가와사키 프린티어 빌딩 9 층  
전화 044-200-2846 FAX 044-200-3707 E-mail:25gaikok@city.kawasaki.jp